

한국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명호^{1,2,*}

¹한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²생산혁신기술연구소
(mhkim@hnu.kr*)

한국 플라스틱 산업은 2009년 이후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이며 인당 플라스틱 사용량도 연간 110kg으로 세계평균 42kg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사슬 측면에서 플라스틱 산업은 원재료업군, 가공기계업군, 가공업군, 서비스업군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는 원재료업군 이외에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가공기계업군과 가공업군은 자체 기술개발 능력의 부재와 저가격 및 품질신뢰성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황에 있다. 이는 가공기계의 초기 해외도입, 국내 복제를 통한 기술개발대체, 저가 기기 판매와 기계가격하락, 과당경쟁 및 기술개발 회피라는 악순환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최근 IT/디스플레이 부품소재의 수입의존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영역인 가공기계업군과 가공업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업군을 담당할 전문 기관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 배출 및 재교육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플라스틱 산업을 공급사슬 측면에서 분석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